

경기도 옛청사에서 세계 최대 규모 보물찾기 축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3천40명 참가. 종전 세계기록 갱신

12일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세계 최대규모 보물찾기 축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성료

경기도가 지난 12일 경기도청 옛 청사(수원시 팔달구 소재)와 팔달산 둘레길에서 개최한 디지털 실감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대규모의 보물찾기 축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3천40명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디지털 실감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어린 시절 소풍에서 즐겼던 보물찾기처럼 보물을 찾는 이색 콘텐츠로, 침체된 옛 청사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보물이 적힌 쪽지가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적용한 가상보물로 설정됐으며, 보물 수령은 스마트폰 기프티콘 교환 권으로 대체됐다.

이날 행사에는 3천40명이 함께 했는데, 이는 종전 세계 기네스북 기록인 2017년 캐나다 오타와시의 2천732명을 넘어 기네스북 신기록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기네스북 기록 측정을 위해 사전 지정된 증인 2명이 현장에 참관했다.

참여자들은 총 200개의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옛 청사 구석구석과 팔달산 둘레길을 걸었고, 보물을 획득한 수와 랭킹에 따라 사회적경제상품, 배달특급 쿠폰,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을 지급했다. 미니게임존, 포토존, 푸드트럭,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도 제공해 관람객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1등은 보물 172개, 2등은 171개, 3등은 170개로 마지막 5초를 남기고 우승자가 박빙으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인근 소상공인과 협업해 상인회 음료 부스를 운영하고, 상인회 10% 할인권을 보물찾기 보상품으로 제공했다. 기존 보안시설로 민간인 금지구역이었던 충무시설을 개방해 조성된 미션존은 상인회의 상호를 암호로 찾는 임무로 구성해 재미와 홍보를 다 잡도록 했다.

이날 준비한 상인회 할인권 500장과 상품권 5천 원권 600장이 전부 소진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향후 민·관이 협력해 수원역-옛청사-팔달산-화성행궁을 잇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옛 청사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이끌고, 도민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설렘이 가득한 곳이 되도록 가꾸어 나갈 방침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옛 청사에서 가족, 친구, 연인끼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이자 인근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도 함께 고려한 의미 있는 기회"라며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시 보물찾기 콘텐츠에도 많은 분이 방문해 참여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상/기자



서울시, 2030 공무원과 '공감 TALK 2탄'

'저출산·육아문제, 높은 주거비 부담문제'를 주제로 직원들과 자유토론



직원 의견에 대해 오 시장은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온전히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휴직에 따른 경력단절과 경제적 부담 등이 고민일 수 있다. 반면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하루 2시간씩 주어지는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지만, 5세까지만 가능하여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학령기 초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육아시간'을 부여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육아제도의 선택지를 넓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비 마련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오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유능한 젊은 직원들의 퇴사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보수 때문이다.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에 무주택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야 창의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가능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과 글로벌 연대 튼튼하게 해줄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 『2023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 새마을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이번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2023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을 축하하며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으로 믿으며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

산업 사회에서 도시와 직장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안심순찰대와 고부사랑 고부나들이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최경욱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는 새마을훈장을, 새마을문고 관리 및 작은도서관 개관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는 새마을포장을, 임명률 등 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광대훈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지사 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유재욱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연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750년 빛은 안동소주, 중국 수출길 올라...

연말까지 70만불(9억원) 수출, 지난해 대비 2배 달성 예상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명품안동소주 본사에서 우일음료를 통해 수출되는 안동소주 중국 시장 진출 선적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선적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수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안동소주 중국 시장 진출을 축하했다.

이번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명품안동소주는 16.9도 저도수 제품이며 15톤(3만불) 규모로 중국 전 지역으로 납품된다.

그동안 안동소주 수출('23.10월)은 미국,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지에 47만불 규모로 수출됐으며 연말까지 70만불 달성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2024년 독일 주류박람회, 일본 식품박람회 참가 등 안동소주의 신시장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안동소주 영국 시장 진출 지원을 시작으로 3월 안동소주 세계화 TF단을 구성하여 도지사 인준 품질기준 마련, 외국 소비자에게 친근

감 있는 브랜드명을 포함한 안동소주 BI 및 공동주병 개발,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홍보판촉전 개최, 수출컨설팅 등 안동소주 세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23년 10월 말 기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액은 7억 8,573만불로 전년 동기 6억 7,941만불 대비 15.6%(1억 632만불) 증가하여 수출목표 9억불 달성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나라 식품 '케이(K)-푸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750년 전통 안동소주는 우리나라 명주로 경쟁력이 있는 대표 주류상품이다"면서 "안동소주 품질향상과 브랜드 세계화에 경상북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김장배추 작목 전환 지원으로 수급 안정

해남·진도 등 11개 시군, 317ha에 14억 원 지원

전라남도는 선제적으로 김장용 배추 적정 생산을 유도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추 대체작목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김장 문화 변화, 1인당 김치 소비량이 2000년 74.2kg에서 2020년 32.2kg로 감소하는 반면, 전국 배추(가을) 재배면적은 매년 1만 4천여ha 수준을 유지해 가격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는 대체작목 전환을 위해

지난 8~9월 신청을 받은 해남과 진도 등 11개 시군 317ha에 도비 4억 원을 포함, 최종 사업비 총 14억 원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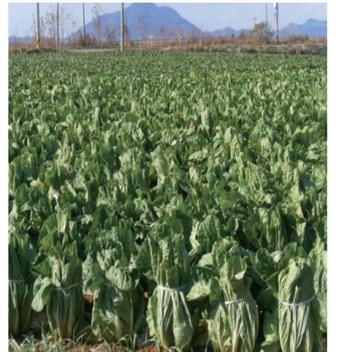
시군별로는 주산지인 해남이 가장 많은 264ha, 영암 17ha, 진도 15ha 순이다. 유형별로는 휴경이 103ha로 가장 많고, 농협과 재배계약이 체결된 보리 47ha, 밀 35ha, 유채 등 기타 작물이 132ha다.

지원 대상은 2021~2022년 배추를 재배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원금은 11월 중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휴경 또는 배추가 아닌 지원 대상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ha당 450만 원을 지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경우 53억 원을 투입해 배추 359ha를 산지 폐기할 사례를 고려해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작목 전환을 지원하게 됐다"며 "작목 전환 뿐 아니라 앞으로 전남산 절임배추와 김장김치 구매협약 체결, 김장대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충남도 '빈대 박멸' 도·시군 합동 점검 나선다



충남도는 오는 13일부터 빈대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과 함

께 도내 숙박업소와 목욕탕업소 등의 위생 상태를 합동 점검한다고 12일 밝

혔다. 합동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도내 숙박업소 및 목욕탕업소 2565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침구의 위생과 소독 상태, 빈대 발생 여부 등이며, 빈대의 특성과 예방 및 방제법 등을 담은 정보집 등을 배부해 빈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체 방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경로당, 영화관, 기숙사,

합숙소 등 도내 빈대 발생 우려가 큰 장소에 대해 관리 관찰(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 예방 홍보집 배부 및 자체 방역을 유도하고 있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지난 6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충남도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내 빈대 피해 최소화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4주간 빈대 박멸을 위해 시군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방안 집중 질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7일에 이어 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최근 3년간 보증 사고액이 증가했지만 도민들에게 그만큼 보증을 많이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면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되 엄중한 잣대보다 절박한 도민의 입장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서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기관으로서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경제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공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 등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취약계층 비대면 보증신청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 방법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편하다고 언급하면서 접근성 편리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고객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출이 급증한 이후 현재는 상환 시점으로 고금리 속 대위변제율이 올해 들어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 폭증으로 인해 고객 응대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원 확대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경제진흥원과 협력 방안 등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2023년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외부고객 만족도가 다소 하락했음을 지적하면서 내·외부 고객을 함께 관리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한 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직원 징계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보호 및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속하게

경제진흥원·신보 두 기관간 협업 방안 주문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금요일에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작년 행감때 지적한 사항으로 올해에도 수의계약 금액이 급증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일부 컨설팅업체의 경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됐고, 특정업체의 경우 연속적으로 수행했다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작년 대비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활동기간이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지역과의 상생 봉사 활동 등에 더욱 노력을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작년과의 비교 자료 부재, 계획만 있고 실적은 없는 등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위원들의 입장에서 자료 작성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업무분장과 맞지 않는 출장 목적으로 인한 공용차

량 사용 및 높은 이직률에 대해 질타했으며,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우려가 된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전직원을 상대로 조직 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나 사례 발표,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 등과 달리 최일선에서 도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군해외수출상담회 실적을 보면 MOU 체결만 하고 실제 계약 금액이 없는 등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현지 특성에 맞는 국내업체 선정 및 일정, 사후관리 등 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전년도 행감때 지적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이 올해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다며 행감자료

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했고, '일자리Job는 날' 운영을 예로 들며 예산 대비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수의계약과 경영공시의 데이터 불일치 및 고의적 누락, 자체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를 통해 신뢰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감 자료에 대해 질타했고, 기관장의 차량운행일지와 실제 운행거리와의 차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구체적 자료제시와 함께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관의 모호한 정체성 및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광고판 철거 등을 예로 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을 9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 줄 것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특정식당에 편중되어 사용됐음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경영 실적만큼 중요하다고 경제진흥원의 3년 연속 최하위등급에 가까운 청렴도 평가에 대해 지적했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렴감사실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고항시장 행복어울림 사업의 경우 개소당 적은 지원금으로 상인업체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실정이라며 지원 개소수를 줄이거나 전체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상인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고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문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 위원장은 위수탁 사업량의 과다로 인해 조직의 부작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직원들 대상 면담 실시 등을 통해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지역구 방문시 현장고충을 청취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하루 8시간 초과 교육 이수자 과다

배영숙의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내부문제 관련 교육 이수 미흡한 점 등 강하게 질타

10일 제317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의 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먼저 "정보산업진흥원은 내부적으로 원장의 부재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실장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서로 소통하여 조직문화를 쇄신해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임직원의 법정외교육 이수시간이 2023년에는 '진행 중'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이 법정외교육은 현재 원의 내부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이 다수인데 아직 미이수된 점, 상반기에 미리 이수하여 내부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등은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받는 위탁교육 이수자가 많다. 그런데 직원별로 하루동안 42.97시간 26.9시간, 32.98시간 등을 이수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박명수 경영지원실장은 "온라인 교육을 받을 때 속성으로 땡겨서(배속을 조정하여) 보는 기능이 있다. 중요한 부

분을 듣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은 "그러한 방법은 편법인데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 그렇게 듣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하게 지적하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해당 자료 제출을 받은 후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한 교육인데 배속으로 듣는 것은 단지 '수료'의 목적인 뿐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내부조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감사팀이 있어서 감사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내부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부산시민을 위한 기능을 심본 발휘하여 시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에 "지적사항에 대해 가슴 깊이 새기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과 노력하여 번듯해 나가겠다"고 반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지난 9월 성비위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있어 사퇴한 바 있다.

김희태/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청렴도 개선을 통해 사업과 경영을 쇄신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경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광단지 활성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질타를 이어나갔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해 경주시가 추진해온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는 물론 경상북도를 더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공사에 주문했다. 또한, 경북의 새마을 정신을 모르고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주엑스포대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시설 관리유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쓰레기와 병든 수목 등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부실로 흉측하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이 적지 않은 만큼 인력부족의 문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엑스포는 경주의 얼굴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8월 25일에 보문호에 설치된 조형물이 직할 방식으로 계약됐으며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는 계약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형물 제작이 과업지시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경주와 관련성도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경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경주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며,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를 망치고 있다며 직원들이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며 경주를 위한 공사 직원들의 노력

이 너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부지매각 당시 계약규정을 공개 하며 경주 보문단지상가는 물론 안동문화관광 단지 또한 매각 당시 규정을 명시 하지 않아 주민 동안 방치하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음을 지적하고, 소유주와의 협의를 끈임없이 하여야 하며 보문 상가 활성화 대책의 즉각적인 마련은 물론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21년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제주 조각공원의 조형물을 임대해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 후 제주 조각공원의 홍보 협약을 작성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철거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사에서 운영하는 경북의 공적인 SNS를 통해 사장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시태그를 비롯한 영상주제를 변경 개선 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짙라인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짙라인 규모, 설치장소, 사업비, 사업기간, 출자금액 등 거의 모든 항목이 변경됐음을 지적하며, 전체 사업비가 440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므로 모든 절차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결과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질타하며, 이는 고객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주 소백산 등 경북 북부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힐링관광상품 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ESG와 관련하여 전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

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을 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 수치화되고 정량화되어야 ESG 실천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엑스포가 문화관광공사와 통합되면서 41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축소되며 재배치 됐다며, 기관 통합 후의 인력 운용은 개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업무를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사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 평가가 3등급, 내부평가가 4등급으로 나왔다며 내막을 잘 모르는 외부의 청렴도보다 내부의 청렴도가 더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임원들과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주 엑스포대공원의 슬거미술관과 관련하여 매년 지적 하고 있음에도 특정 화백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방법의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전시관이 아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엑스포의 미술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공사의 장애인 고용율이 정부의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적으로 총 구매액의 1%를 구입하도록 되어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에서 신청한 8건의 국비 사업 중 2건만 국비 확보가 이루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보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고 개선하고, 그 결과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며,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것에 대해 명칭만 바꾸어 다시 사업을 계약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점을 시사하며 계약은 검증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만 공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 실적이나 성과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경북문화재단은 업무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업무 영역 중첩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설정하여 서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공사가 청렴도에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렴도에 대한 개선이 결국은 사업일 경영과 연계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렴도 평가결과는 경영평가 결과로 이어지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혁명적 사고를 통해 쇄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동문화관광 단지의 개발을 위해 공격적인 경영으로 난제를 풀어 달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융통성 있는 경영을 주문했다. 또한, 정경민 의원의 자료로 제시한 한국관광공사의 계약내역을 언급하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매매당시에 규정을 명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 지역경제 살리기 역행!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한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구매하는 방송 장비 대부분이 대구의 다른 지역 업체 제품임을 지적하고,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질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구교육감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작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김원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교육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는 달리 방송장비와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타 지역 업체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대구시교육청 분청 포함 산하 기관, 각종 학교에서 발주 구매한 방송장비 구매액 약 92억원 중, 경기도 등 외지 업체가 86억원을 납품한 반면, 대구 업체는 6억원 정도만 납품 설치했음을 지적

하며, 김원규 의원은 "교육청은 공개입찰 시 자격을 갖춘 대구지역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지만, 제품의 세부규격 설정 시 지역업체에 없는 특정업체 제품 사양 설계로 인해 지역업체가 낙찰받아 실제로 납품된 사례는 극히 미비하다"며, "말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지역업체를 소외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마저 차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할 일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임성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 제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엔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포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대폭 확대할 것"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중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사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에서 공동주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사업 예산을 30억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의도와 다르게 문화의 날 지원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 올해 공동주택 문화행사 지원이 부진했던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78%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한다면, 경기도민의 정서적인 치유와 취

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이고, 공동주택 거주도민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원한다면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업의 신청 주체가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 신청 대상이 문화예술 법인·단체와 예술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문화행사 지원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 주체가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법상/기자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세계 현대도예 거장 작품 한자리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 소장품 상설전 《현대도예-오디세이》 개최

한국도자재단이 11월 24일부터 이천 경기도자미술관에서 2023 경기도자미술관 소장품 상설전 《현대도예-오디세이(Odyssey of Contemporary Ceramic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자미술관이 소장한 세계적인 현대도예 작품 전시를 통해 일반적인 도자기의 쓰임에서 벗어나 예술의 한 장르로 변화해 온 현대 도예의 변천 과정을 알리고 '도자'에 대한 도민의 인식 변화와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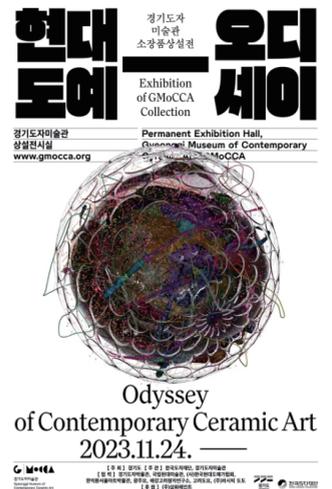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는 경기도자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 선보이는 소장품 상설전으로 지난해부터 약 1년간의 미술관 고도화 공사를 거쳐 일부 전시실을 상설전시실로 재구축하고 운영 방식 개편(기획·특별전→기획·특별전 및 상설전)을 통해 언제나 열린 미술관으로 도민이 더 많은 문화를 누리고 도자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자미술관은 지난 20여 년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비롯해 다양한 현대도예 관련 국제 전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총 2,466점의 세계 주요 작품을 주기적인 상설전 개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현대도예-오디세이》에서는 현대도예의 시작과 변화 과정, 오늘날의 표현 양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 총 26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전시는 ▲1부 '흙, 현대 도예의 서막' ▲2부 '흙, 현대도예 모색과 탐구' ▲3부 '흙, 현대도예 모색과 탐구'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흙, 현대 도예의 서막'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선구자 작품과 함께 현대 도예사의 시작과 뿌리가 된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를 위한 움직임 속 형성된 한국 현대도예의 주요 소장품과 세계 현대도예 속 '도자'를 '점토'로 인식하며 예술의 새로운 표현 매체로서 혁신적인 작품 활동을 펼친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부 '흙, 물질과 조형언어'에서는 21세기 현대도예의 다양한 경향 중 대표 유류의 '물질'에 대한 표현과 함께 도예의 가능성을 공간과 구조, 형태와 크기, 색과 질감 등 입체 조형의 관점에서 탐색해 온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3부 '흙, 현대도예 모색과 탐구'에서는 자유로운 조형언어의 획득 이후 작가의 주관적 사고와 감정, 서사의 표현을 담은 3차원의 입체 조형과 다원화된 현대도예 작품을 선보인다. 21세기에 나타난 현대도예의 다양한 표현 양상을 '새로운 형상과 회화성', '기(器)', '심미성의 탐색', '현대도예의 다원화' 등 3개의 영역을 통해 소개하며 도자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또 다른 범주의 도자예술을 모색하고 탐구해 가는 소장품을 조명한다.

이외에도 '기(器)', '심미성의 탐색' 컬렉션 공간에 마련된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을 통해 상설전시실에 출품된 소장품을 2D, 3D 등 다각도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자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후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전통적 개념의 '도자'에서 예술의 한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현대도예의 시작과 변천 과정을 전 세계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으며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11월에는 경기도자미술관의 상설전시실인 일부 재개관되며 공식적인 재개관은 미술관 고도화 공사 종료 후 내년 4월 '2024 경기도자미술관 상반기 기획전' 개최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법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재영의원,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과원 내부감사 ...감사실 운영 전면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전산실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보안서버 장비 중 백본(backbone)*장비를 미설치한 뒤 허위 보고 등이 담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과원의 감사 실태와 전산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백본(backbone) : 기간망 ①랜에서 광역통신망(WAN)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회선 또는 여러 회선의 모음 ② 빌딩 간의 연결처럼 랜 안에서 거리를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회선 이재영 의원은 백본(backbone)의 미설치로 인한 경과원의 금전적 손해를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이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감사실은 해당 담당자 조사 당시 '업무상 배임'을 고려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



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에 2020년 기준으로 백본 제품이 보안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8년에 구매한 제품이 어떻게 2년도 안 되어 보안인증이 만료되는지 의문"이라며, "2018년 당시에 함께 구매한 다른 정보보안 장비는 보안인증이 됐는가?"라고 물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나머지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와 첨부된 'IT성과감사 보고서'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대부분 발췌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내비쳤다.

또한, 문제가 된 백본(backbone) 제조사의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올해 한 대 구매했고, 2024년에 또 구매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도 백본

(backbone) 장비만 사고, 라인카드는 없다"며, "2018년 문제가 된 부분도 차년도에 라인카드를 산다는 계획에 순차적으로 구매하려다 백본(backbone)이 방지된 것인데,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과원 감사실은 해당 건의 징계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한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것으로 나온다.

경과원은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에 대한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과원 감사실장으로 보면 경과원은 법률 자문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감사에 대한 자문 형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감사실의 판단으로 작성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힘들어 보인다"며 강성천 경과원장에게 감사실과 전산실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김법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공으로 사회복지정책부문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지역사회 복지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보 기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1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서울복지신문사 사장상을 받았다.

이용욱 의원은 제7대 파주시의회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복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이 의원은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착한하격업소 지원 조례', '파주시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대상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엠미디어넷그룹·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아시아타임즈·뉴스후플러스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힘써온 시민들을 수상자로 선발해 공적을 기려왔다.

김법상/기자



경기도의회 김호겸 도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시 다양한 교육수요자 의견청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위원회(평택시 소재)에서 열린 평택·여주·광주하남·이천·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시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청취로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지만, 감사 받고 있는 5개 지원청에서 2024년 예산 반영 건수가 22건으로 저조한 편이고 금액으로는 약 1억 5천 정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교육청이 놓치거나 많은 사람이 수혜받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반영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이 사업의 성공은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교육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3년 경기도의회 의원

이 개최하는 경기교육관련 정책토론회가 19건이었으며, 토론회를 열기 위해 의원들의 노고가 상당한데, 25개 지원청에서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의견들을 교육청에 반영하거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토론회 무관심에 각 지원청을 질타했다.

이어 얼마 전, 같은 위원실 이학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는데 많은 의원들을 정책반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특성화고 설립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취업축하' 현수막보다 '대입축하' 현수막이 더 많은 듯 보인다며 특성화고를 선택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산업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계 및 산학협력단과 협업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법상/기자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지금과는 다른 발상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 정책 추진에 임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플랜 마련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언급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독서 및

독서토론, 글쓰기 등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프로그램들이 진행중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실적 및 통계자료 등을 검토·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

돌봄 미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سه 돌봄을 운영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주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지역별 운영 편차가 심각한바 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경기도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언급하면서 "근시안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멀리보고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경기도 맞춤형 작은도

서관 비전제시가 필요하다"며 "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중간조직인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 등도 검토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발전적인 작은도서관의 생태계를 잘 조성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의 입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적극 공감한다"며 "현장성 높은 작은도서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법상/기자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포럼 개최

이천시는 지난 11월 10일 이천시청 대회의실(1층)에서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장사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패널들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 응답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화장시설 건립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천시는 지난 9월 1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정리 화장시설 건립 중단을 발표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화장시설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순조롭게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이라 판단하여 금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주민포럼을 통해 이천시 주민



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또한 장사전문가들의 화장시설 건립에 있어 성공적인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해 이천시에 가

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화장시설 건립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

이천시 김영희 시장은 "그동안 추진

해 왔던 수정리 화장시설 건립이 중단되어 시민분들께 많이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이 컸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인 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있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주민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에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 세부계획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이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화장수수 해결을 위해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진 화장시설 건립을 재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범상/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현안사항 협조강력 요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및 CRC 상위계획(발전종합계획 등) 변경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군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상위계획 변경을 강력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한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2022년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으로 반영돼 있는 기존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제외)도 건의했다.

시가 분석한 결과 ▲물류용지에 대한 사업성 부족 ▲경기북부 물류시설 공급 증가 ▲주거밀집으로 인한 대단지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CRC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CRC에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건의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및 CRC 상위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동근 시장은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등에게 캠프 레드클라우드 조기 반환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을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광명시, 이동노동자 노동권의 향상 노력... 전용 쉼터 추가 조성

냉난방시설과 휴식 장소 등 편의시설 갖추고 10일부터 24시간 운영 시작



광명시가 이동노동자 노동권의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를 추가 조성했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일직동 무의공 만남의 광장에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휴'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과 시의원, 국회의원, 시도의원, 이동노동자 대표, 일직동 상가번영회,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쉼터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는 관내 두 번째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이다. 시는 직업 특성상 이

동이 잦고 고정 휴게공간이 없는 대리운전, 택배, 학식지고사, 보행설계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건강복지 차원에서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를 추가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소한 쉼터는 컨테이너를 활용해 27㎡(8평) 규모로 조성됐다. 냉난방 시스템, 테이블, 소파, 무선인터넷, TV, 정수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고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동되며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이동노동자와 인근 지역 상인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장소를 선정하고 내부를 구성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고 편리한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현재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여름철에는 폭염과 장마, 겨울철에

는 한파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일직동 상가번영회 회장은 "이동노동자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서 밖에서 대기하는 게 안타까웠는데 쉼터가 생겨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철산동 상업지구(철산로 30번길 9, 5층)에 거점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한 해 1만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이용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하남시,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수료생 34명 배출



하남시가 10일 하남시청 대강당에서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수료식에서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통해 배출한 총 34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단과대학별 수강생들의 참여 내용을 발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남시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개념의 학습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주제별 이론 강의와 참여자 주도형 실습방식인 리빙랩(Living Lab)을

병행한 하남형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이며 2019년부터 운영해 2023년 하반기까지 총 44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하반기 도시재생대학은 지난 9월 14일부터 8주에 걸쳐 생활미대어대학, 공공디자인대학, 활동가양성대학, 마을가드닝대학 4개 단과대학을 통해 주제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또한 각 단과대학은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하남시 시니어 홍보단 '하시홍'결성 및 온라인 채널 개

설 ▲공공시설웨이퍼인딩(way finding)디자인 ▲지역리더 퍼실리티라이브 리더십 배양 ▲어린이텃밭 미니가드닝 조성 등의 내용으로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 및 시민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지역 정책개발에 앞장서는 시민 리더가 육성되고 활력 넘치는 원도심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인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치아가 없어 음식을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틀니(완전, 부분)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현재 977명의 어르신이 지원 받았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7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21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

월 이내에 해당 부서(복지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해림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치아의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유발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 불편호소율은 32.3%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5%보다 높은 수치다.

김종남/기자

부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시민체감형 교통정책 실현해 호평

부천시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모범 실패사례 3건 등 56건의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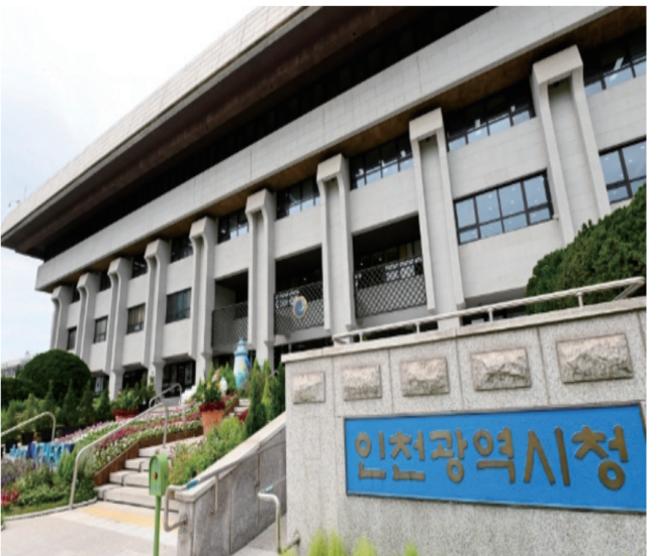
부천시는 각종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입한 '전국 최초! 부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사례로 지자체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부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는 무조건적 단속이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체감형 교통정책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은 부천시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2023 수원-가오슝 화상언어교류 참가자 모집

12월 한달간 대만 가오슝시 시민과 매주 다른 주제로 대화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2023 수원-가오슝 화상언어교류'에 참가할 수원시민 10명을 11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만 가오슝시는 수원시의 국제우호결연도시다.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수원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은 가오슝 시민과 12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자기소개, 음식, 일상생활, 기념일 문화 등 매주 다른 주제로 대화한다. 중국어가 능통한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며

'일대일 언어 친구 매칭'으로 교류를 활성화한다.

구글폼에 접속하거나 홍보물 하단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이후로 중단됐던 대만 가오슝과의 화상언어교류를 재개해 수원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외교를 실현하겠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민들이 상호 방문하는 교류사업으로 연결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제15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울기·봉공·애민 등 3개 분야 10개 지표 평가

안양시가 '제15회 다산목민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과 상금 2000만원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3단계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안양시는 울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 등 3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먼저, 행정효율·청렴도를 평가하는 울기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청렴 활동과 다양한 부패 방지제도의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도개선·갈등조정을 평가하는 봉공 분야에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정 지원을 통한 IoT(사물인터넷) 기반

AED(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등 중점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차별화된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지역발전과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애민 분야에서는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 12년째 지속해온 장학사업과,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청년상 조례 제정·청년임대주택 3000여세대 공급·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안전·교통·복지·문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최첨단 지방행정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도시 조성에 오랜기간 공을 들여왔다"고 평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55만 시민과 2천여명의 공직자들이 함께 일귀년 최고의 성과"라며 "다산목민대상이 각 지방정부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우용/기자



용인특례시, 2024년 농업계 학교 지원사업 공모에 경희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유리온실·스마트팜 인프라 등 구축 예정



용인특례시는 경희대학교(생명과학대학)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공모 대상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계 학교에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예비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농고(70개교), 농대(34개교)가 지원대상이다.

경희대는 실습장 구축 부문에 선정돼 내년 총 6억원의 사업비(국비 70%, 시비 30%)를 지원받아 국제캠퍼스 실습온실 내 유리온실과 내부 스마트팜 인프라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경희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추천

했다. 경희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심사단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분야의 인재들이 이론과 현장 실습이 조화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래의 농산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선순환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2023 고양문화예술정책 토론회(포럼) 개최

15일 '고양시와 케이팝, 새로운 미래를 열다' 주제로 토론 진행

고양특례시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EBS 스페이스홀에서 '고양시와 케이팝,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2023 고양문화예술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와 케이팝,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미래를 바꾸는 도시 고양시와 대한민국의 글로벌 문화 대표인 케이팝(K-pop)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고양시 브랜드 홍보대사 가수 이무진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동시대 케이팝의 현재와 고양시 음악 페스티벌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대중문화평론가 정덕원이 진행을 맡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이자 EBS 스페이스 공감 기획위원 김광현, 대중음악평론가 김윤하, 임희운, 서정민갑, '문화사업의 노동구조와 아이들' 저자 이종임을 비롯해 국내 대표적인 K-컬처 콘텐츠 제작사 CJ ENM 관계자, 고양시 문화예술과 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고양시와 케이팝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음악산업계가 젊은 음악인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케이팝 팬덤 문화와 새로운 문화사업에 관한 토론을 통해 고양시가 케이팝을 통해 이끌어 나갈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문화예술정책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양특례시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안산시는 지난 10일 중앙일보 홀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부문에서 전국지자체 1위를 달성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과 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계 자원의 치안 활동 참여를 확산하고 자발적 참여 의지를 견인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사회적 약자보호,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등 3개 분야에 총 255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해 심사를 거쳐 최종 29개 기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산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법무부, 상록·단원경찰서 외 20여 개유관기관 및 응급 의료기관, 민간단체와 촘촘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유일 로보캡 순찰대 및 시민안전지킴이 운영 ▲방범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개소 ▲성폭력제로 시범

사업 등 차별화된 안전 시책 추진으로 '범죄 없는 안전도시 안산'을 만들어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 것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민·관·경이 협력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전국 최초로 출범, 원활한 운영을 통해 범죄 사전 예방부터 사후 피해자를 위한 치료 및 지원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이 계속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은 물론 자율방범대, 로보캡 순찰대 등 민·관·경이 공동 대응에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부/기자



성남시,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보고회 열어

고용과 등 재난대처 능력 우수한 부서 6개 선정

성남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보고회'를 열고 재난유형에 대한 대비태세를 잘 갖춘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이번 보고회는 상황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유형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역할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32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16개 부서가 참여했다. 우수부서에는 ▲최우수상 고용과 ▲우수상 감염병관리센터, 정수과 ▲장려상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도로과 등이 선정됐다.

우수부서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

차 발표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1차 서류심사는 5명의 평가위원이 매뉴얼 작성기준 준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사항 반영 등 평가표를 기반으로 10개 우수매뉴얼 관리부서를 선정했다.

2차 발표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 부서가 재난 발생시 임무, 초기 대응, 수습복구 절차 등을 재난 특성에 맞게 요약·정리하여 발표했으며, 4명

의 전문가가 평가한 후 6개의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발판삼아 향후 개선·보완을 통해 모든 재난의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응급의료 도상훈련 교육 실시



화성시가 10일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시 보건소 직원의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도상훈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학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의료진들을 강사로 초빙해 화성시서부보건소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건물화재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에 관한 이론교육과 '다수 사상자 도상훈련 키

트'를 활용해 실제와 같은 의료자원 상황을 연출한 모의상황 실습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선착 신속대응반의 현장상황 전파 및 반별 업무 분담 훈련 ▲중증도 분류 방법 및 처치 ▲돌발상황 대응을 통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능력 강화 등이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상황에서 보건소 직원의 현장 응급의료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응급현장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전남도, 2024년 예산안 10조 7천44억 편성

정부 예산신장률 2.8%보다 높은 3.5% 3천663억 원 증가



전라남도는 10조 7천44억 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 3천381억 원)보다 3천663억 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천73억 원(3.3%) 증가한 9조 5천956억 원, 특별회계는 590억 원(5.6%) 증가한 1조 1천88억 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 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민생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없는 재정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는 민생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산업 투자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에 최우선 가치'를 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평소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전남도가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652억 원과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편성 등 선제적 대응 결과라는 분석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 3천137억 원, 지방교부세 1조 2천700억 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 3천155억 원,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 원과 지방채 1천500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사업은 '미래투자' 분야는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기반시설 역할을 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 원을 신규 지원해 전남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에 온 힘을 쏟는다.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캡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30억 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97억 원 등을 신규 반영해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중·소상공인 이차지원 사업'에 34억 원을 증액한 213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70억 원을 반영해 중·소상공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는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상돌봄 서비스'에 23억 원을 편성해 716명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전남 건강버스 운영'에 2억 원을 신규 편성에 추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응원' 분야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으로 가장 10년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1천 호를 목표로 청년주택을 지속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사업에 36억 원, 청년귀여인에게 근해어선을 싣값으로 임대해주는 '청년어선 임대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해 청년 농업인이 큰 자본없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에 407억 원을 증액한 1천335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천71억 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에 343억 원을 투입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29억 원을 신규 투자해,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주요 세출 분야는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 ▲농축수산업의 고품질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안전하고 살고 싶은 전남만들기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경·산림 등이다.

세부사업별로 폴리메틸렌 소재를 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소형어선 기술개발사업'에 31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23억 원을 증액한 64억 원을 반영해 첨단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개발'에 33억 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을 선도한다.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산과 관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에 7억 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6억 원을 신규 반영해 근로 인력 문제 해결과 농축산물 품질을 개선한다.

수산업식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을 위한 '수산업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38억 원,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에 175억 원을 반영해 수산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논에 쌀보리·감자 등 발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한 427억 원을 반영해 쌀 농사 위주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9억 원을 증액한 199억 원을 반영해 농가소득 보전에 힘쓴다.

나후 어촌마을 17개소를 대상으로 기항지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299억 원을 지원한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3억 원, '섬 지역 택배 운임비 지원'에 18억 원을 신규 반영해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전남 19~28세 청년 교통·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23억 원 증액한 114억 원을 편성하고, 11만 4천여 명에게 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741억 원을 증액한 3천675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495억 원을 증액한 1천68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6만 4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6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을 편성, 생활지원금 5만~7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해 이들의 건강을 살필하게 살핀다.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컨벤션 효과를 활용하면서 세계 관광객을 유인하는 농업 프로젝트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에 15억 원을 새로 편성해 전남 곳곳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또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3억 원을 신규 반영해 '세계의 섬 수도 전남'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76억 원을 증액한 148억 원을 반영하고, 세계적 해양관광 매력적 섬 특화를 위한 '관광성 육성사업'에 26억 원을 신규 편성해 세

계적 여행명소로 조성한다.

한국형 디즈니랜드 육성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7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호남의병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에 90억 원을 반영, 의로운 남도 정신을 알린다.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개최 지원에 4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올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기를 살리는 경제 체전으로 만든다.

소방예산 623억 원을 증액한 4천151억 원을 반영해 도정 제1가치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축과 장비를 보강한다.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수리 용역'에 5억 원을 투입해 전남형 트램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타 신청 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시군 주도형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인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한 135억 원을 반영하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사업'에 8억 원을 반영해 지역 성장 기반을 돕는다.

'지방도 정비사업'에 1천500억 원, '도시재생사업'에 534억 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한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580억 원을 반영해 먹는 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113억 원을 증액한 304억 원을 반영해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한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52억 원을 반영해 75개소의 마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선'에 861억 원을 증액한 1천575억 원을 반영해 마을 하수도 105개소를 정비한다.

'전기자동차·소수자동차 보급' 사업에 921억 원, 노후산단 등 미세먼저 발생원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80억 원을 투자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

장항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점시책, 도민 행복시책,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며 "전남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 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총 209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보고회를 갖고 이중 68건 179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분야별 미래 신산업 7건 13억 원, 균형발전 3건 14억 원, 소득증대 20건 77억 원, 행복시책 28건 62억 원, 기타 10건 13억 원 등이다.

박종배/기자

남원시민과 함께 드론산업으로 도약한다

남원시민 대상, 11월 17일까지 드론 특화분야 전문인력 참여자 공개 모집

남원시가 시민 대상으로 '드론산업 맞춤형 미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전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2023 RIS 지역혁신 자용과제 공모'에 남원시가 우수대 대학협력단과 함께 신청한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지역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드론이 농업, 산림, 레저스포츠,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 교육과 더불어 전문가 양성 교육, 기타 경영 교육 등을 실시하여 드론산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드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신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층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 유관 기관과의 신규 취·창업 운영·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취·창업 지원 생태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드론-UAM 산업에서도 전문인력의 양성은 필수 과업이며, 드론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청 관계자는 "우리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은 중요한 요소이기에, 남원시민들 중 드론 분야의 창업 및 취업 희망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우석대학교 홈페이지 일만공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남출/기자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과 특독... 전년 대비 인력 10배 증가

지난해 32명서 올해 366명 근로자 농가 투입

전라남도 나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점 추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32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10배 넘게 증가한 366명이 배정·고용되면서 농촌 고용확속 인력난에 농가재, 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던 농가에 그야말로 단비가 됐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내년엔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나주시 농가에 투입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결과 127농가에서 545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올 한 해 농가에 투입됐던 366명의 계절근로자 수에 비해 1.6배 증가한 수치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예상치인 50~100여명을 합하면 내년 상반기에만 600여명의 계절근로자가 농가 일손을 보낼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농가에 316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과수, 시설하우스 등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50명이 더해져 총 3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돼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인력 효과는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번기 14만원선을 유지해온 평

균 일당이 적극적인 인력지원 정책과 조례 제정 등에 힘입어 11~12만원 선으로 하락하면서 농가 인건비 절감 효과는 최소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가 9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5농가 중 84%가 만족 의사로, 이 중 93%가 지속적인 고용을 희망했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159명의 근로자 체류 연장이 농가를 통해 신청됐으며 성실근로자 153명이 재입국 추천을 받았다.

나주시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농가에 대한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11월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심사,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난 4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등 시의회의 노력이 더해지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 활성화에 맞춰 근로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인권 보호, 근무조건 준수 등 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원에 최선을 다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함평군, 2024년 본예산 5,043억원 편성...군의회 제출

전년도 대비 1.47% 감소...어려운 세입여건 속 지역경제 회복 중점

전남 함평군은 국제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지방교부세 및 자체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 본예산안을 전년 대비 1.47% 감소한 5,043억원 규모로 편성, 군 의회에 제출했다.

13일 함평군은 "함평의 미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복지정책 등을 위한 군민 밀착형 주요 정책 사업을 반영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규모는 총 5,043억원으로 일반회계 4,952억원, 특별회계 91억원이며 올해 본예산 5,118억원 대비 75억원(1.47%) 가량 감소했다.

함평군의 내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49억원(29.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익직불사업 231억원, 전담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45억원, 함평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0억원,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 40억원 등을 반영해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046억



원(21.13%)을 반영해 기초연금 408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9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33억원 등을 편성, 취약계층 복지안정망을 강화한다.

환경 분야는 619억원(12.50%)으로 함평을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129억원,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9억원, 학교연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52억원, 함평 대동댐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2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비 사업인 상하수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함평군 상하수도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3억원(6.73%)으로, 예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 35억원, 문화예술회관 30억원,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0억원, 실내수영장 건립 57억원, 월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상적 경비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와 편성에 최선을 다해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된 2024년 본예산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12일 최종 확정된다. 김영진/기자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해설사 심화 현장 특강 개최

전남 구례군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양성한 마을해설사 24명과 주민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심화 현장 특강을 11월 7일 구례주조장 예술창고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강 강사는 위드선샤인 박선영 대표로 소니코리아 2019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진작가이다.

이번 특강 주제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담아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촬영 역량을 키워 우리 군

홍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교육생들은 이론 강의를 마친 후 골목길과 국화 전시장 풍경을 담은 현장 실습이 진행됐고, 개인별 피드백이 제공된 점을 호평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질 높은 강의를 통해 마을해설사의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전북도내지역 모범청소년 대상 글로벌 문화 체험 운영

미국의 정치, 과학, 역사, 교육기관 방문 등 다양한 견학 기회 가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김대식)은 전라북도 모범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2023년 호남지역 모범청소년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6박 8일간 뉴욕, 워싱턴 D.C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진행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미국 뉴욕 호남 파운데이션', '메릴랜드 호남향우회' 2개 기관 및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총 5명의 모범학생이 선발되어 연수에 참여했다. 연수에 참여한 호남지역 모범청소년들은 UN본부, 맨해튼 자연사박물관, 링컨메모리얼 기념관, NASA박물관, 육군사관학교 등을 견학하며, 미국의 정치, 과학, 역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북여자고등학교 강한별(2학년)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해외 국가에 방문했다"며, "힘들었던 학교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실제 미국 생활체험과 다양한 유적지 방문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주셔서 호남 향우회와 전북도, 전주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호남 파운데이션' 김영운 회장은 "모처럼 고국의 청소년들이 뉴욕을 찾아와 반가웠다"며, "고향의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고 밝혔다.

'미주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청소년 연수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광주, 전남지역과 협업하여, 전라북도 모범청소년들에게 외국 문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남길/기자



진도군, 제28회 농업인의 날 유공 농업인 대통령 표창 수상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박기태, 황금농장김치 박춘식 등 2명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진도군 농업인 2명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1월 11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전남도와 장성군이 주최하고 전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남 각지의 농업인과 단체 등 1천여명이 참석해 교류와 화합의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남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의 우수사례 영상 시청과 유공자 표창, 농정업무 평가 우수 시군 시상, 공연 등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AI) 첨단 농산업 전망이 이끈다'는 주제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진도군 의신면의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박기태 대외협력 부회장과 진도군 고군면의 황금농장김치 박춘식 대표가 각각 농업인의 날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아 군의 위상을 더했다.

수상자들은 "귀한 상을 수상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라며 "진도내적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에 맞서 진도군의 농업 발전과 농촌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가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영농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민선 8기 이후, 농수산분야 예산 30% 이상 확대 편성, 농수산분야 조직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겨울철 대비 수도시설 동파예방 당부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동파민원처리 상황실 운영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목포시가 수도시설 동파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수도시설이 동파되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목포시는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겨울철 동파, 동결 예방과 조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와 외부로 드러나 있는 수도관을 헹구고, 스티로폼, 헝겊 등으로 감싸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추위가 지속되면 수도꼭지를 틀어 소량의 물을 흘려보내 동파 및 수도관이 어는 것에 대비할 것을 권장하고, 만약 수도관이 얼었을 때에는 약 20°C의 미지근한 물에서 점차 뜨거운 물로 수도관을 녹여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동파 발생 시 목포시청 수도과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동파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겨울철에도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 겨울철 상수도시설(수도계량기, 수도전)을 보온하여
- 귀중한 수도를 누수와 동파로 인한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합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 기간 2023. 11. 15 ~ 2024. 3. 15

겨울철 수도계량기 등 동파예방은 이렇게!

수도시설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합시다!
겨울철 가정의 수도관 및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경제적 손실 및 단수로 큰 불편을 겪게됩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등 동파예방 방법

수도계량기 보온용

- 수도계량기보온용 내부는 보온재(헵솜, 스티로폼, 보온담개 등)로 채워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보온용 뚜껑은 비닐 등으로 밀폐하여야 합니다.

옥외 수도관

- 옥외화장실 물탱크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포장하십시오.

옥외 수도꼭지

- 옥외 설치된 수도꼭지는 일별보는 열어놓고 헝겊보안 사용하십시오.

수도꼭지

- 한파가 지속될 때에는 수도물을 매우 약하게 흐르게 해야합니다.

수도시설 동결·동파시 조치 요령

- 수도계량기, 수도관(꼭지) 등이 얼면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뜨거운 물 안됨)
-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수도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목포시 [수도과 ☎061-270-8564]

완도군, 올해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전라권에서 2위'

먹거리 등에서 높은 점수 받아 전국 25위, 순위 대폭 상승



완도군이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전라권 지자체 중 2위, 전국 25위를 차지했다.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는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8월)를 다녀온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는 각 지역의 여행 자원 매력도(설거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와 여행 환경 쾌적도(청결·위생, 편의시설, 교통 등) 등에 대해 평가하고, 만족도와 추천 의향을 묻고 종합 만족도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완도군이 먹거리와 살거

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총 724점(1,000점 만점)으로 전라권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했다.

전국에서는 25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11위에서 31위까지 점수는 큰 격차가 없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완도는 청정바다에서 자란 전복과 다시마 등 특산품이 풍부하고, 특히 전복을 활용한 회, 찜, 물회, 구이 등 먹거리가 다양하다"면서 "앞으로 해양치유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여행객들이 힐링하고 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화순군, 2023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상' 수상

화순군은 지난 10일 장성군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분야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업인의 날 기념 유공자 분야 수상도 같이 이뤄졌는데,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농장 민권식 대표가 산업 포장용,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문형운 대표, 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 구조성 회장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전라남도에서 농정 현안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올해는 △농업·농촌 활성화 △친환경농업 육성 △식량 원예작물 생산 추진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식품산업 육성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육성 △동물방역 및 축산위생 강화 등 6개 분야 41개 항목을 대상으로 21개 시군별로 추진 실적

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농지 대장 일제 정비, 논 타작물 재배 추진, 시설원예 재배면적 확대 및 청년농 육성, 쌀 판매 및 브랜드 쌀 육성, 환경 친화형 축산기반 구축 확대, 구제역 등 방역 추진 및 축산물 위생감시 분야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 분야에서는 농지의 소유권변동, 임대차, 경작 현황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진행하여 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것과, 농어촌 진흥 기금 적기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

식량 원예 분야에서는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의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타)작물 재배면적을 165ha로 늘리고, 은

퇴자·청년 농 시설 하우수 지원으로 시설원에 재배면적을 확대한 점, 한약 초재배 육성을 위한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규모 들녘 경영체 지원사업 등 공모를 통해 신규 시책을 발굴 추진 예정인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축산분야에서도 조사로 전문 생산단지 집중적으로 육성해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등 축산 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여 소득 증가에 일조하고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으로 쾌적한 농장 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 유통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관내 업체를 전남도 농수축산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 장터'에 신규 입점 유도하고, TV 홈쇼핑 및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실적을 늘려 농가 소득 증대에 일조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 분야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을 공급하고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 지도에 힘쓴 점과,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지원하고 축산물 영업장 위생 지도 및 시료 수거 검사를 진행하는 등 축산물 위생 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및 출하 장려금 지원, 벗짚 환원 사업, 한우 브랜드 육성, 축사 자동 급이 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 지원, 한우-젖소 인공 수정요 지원, 거래 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가정받은 것도 수상에 큰 몫을 했다.

윤경호/기자

경북도, '2023년 전국 학교숲 우수사례 최우수' 선정

산림청 공모, 학교숲의 활용·사후관리분야에 봉화 물야초등학교 선정



경북도는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3년 학교숲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활용·사후관리 분야에 봉화 물야초등학교가 최우수 학교숲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산림청장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학교숲 우수사례 공모전은 학교숲 조성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우수 사업지를 발굴해 학교숲이 전국적으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숲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숲 조성 및 관리·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공모에는 전국 17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신

규 조성 분야에 4개 학교, 기존 학교숲의 활용 사후관리 분야에 3개 학교가 선정됐다.

활용 사후관리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봉화군 물야초등학교는 △생육환경개선과 숲활용성 증진을 위한 학교숲 복원사업시행 △학교숲을 중심으로 인접 전담마을숲과 연계한 각종 숲프로그램 운영 △학교숲의 지속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학교의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심사에서 높게 평가됐다.

특히, 개교 100주년인 2022년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원의 학교숲 복원사업비 투입으로 기존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적 작업(지반정리·외과수술·지지대 설치) 및 신규 수목식재와 데크·외자 등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해 숲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숲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는 아름다운 숲이 있다"의 프로그램을 진행

해 학생들에게 애교심 향상과 숲이 주는 즐거움을 비롯한 자연을 사랑하는 의식을 함양시켰으며, 식목일에 유실수 등 다양한 나무를 식재하고 숲속 시(詩)정원을 조성해 학생들이 직접 지은 시를 전시하는 등 숲과의 친화력을 높여왔다.

또한, 외부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봉화숲해설가협회와 연계하여 물야초등학교의 숲과 더불어 인근 참마전마을숲에서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수상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친자연적인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교가 합심한 노력의 결과로, 특히 침체된 인구수 밀지역에 활력과 자랑거리가 됐다"고 말하며, "도내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확대·조성하고, 꾸준한 사후관리와 운영 활성화로 최상의 숲교육 공간과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재생, '주민참여 도시학교' 성황리 종료

최종결과물 발표 및 평가 통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선정

대구광역시는 도시재생 주민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11월 까지 8주 동안 운영해 왔던 '제15회 주민참여 도시학교'의 최종발표회 및 수료식을 11월 7일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주민참여 도시학교'는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및 단체가 팀을 구성해 스스로 동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는 실습 중심의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제15회까지 92개 팀에 933명이 참여하고, 761명이 최종 수료했다.

그간 주민참여 도시학교에 참여한 대상지 중 31곳이 실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도시재생 사업으로 실제화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도시학교 참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실제로 사업추진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선정됐다. 그중 최우수상에는 중구 남산1동 주민협의체로 이루어진 남문팀이 선정됐다.

남문팀은 '남문 차차차(차차차근, 차별화된, 차이나는 거리)'로 팀명을 정하고, 자동차골목, 남문시장 등에서 활동 중인 주체들이 단합력, 추진력을 바탕으로 '남문시장과 남산자동차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즐겁고 신나게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도출해 주목받았다.

이 밖에 우수상은 침산오봉협동조합팀(북구 침산1동), 원교리도깨비팀(달성군 현풍읍 원교1,2리)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팀은 대구광역시장을 받게 된다.

수료식에서는 남구 조명제, 북구 강상기, 달성군 김해연 주민이 전체 수료생을 대표해 수료증을 수여받고 소감을 발표했다. 조명제 대표 수료생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많은 발표를 해왔지만, 주민 의견을 담아 발표한 것이 가장 많이 떨렸다"며, "도시학교를 통해 남산동 발전의 희망이 생겼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엽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주민 스스로 머리를 맞대 각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더 나은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은 주민의 의견을 행정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력적 도시재생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데이터 기반 위케이션과 디지털전환 포럼' 개최

1.14. 16:00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



부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4시 부산 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 '데이터 기반 위케이션과 디지털전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 전환(DX) 포럼'의 11번째 행사다.

'디지털 전환(DX) 포럼'은 열악한 지역의 데이터 산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 빅데이터 관련 최신 기술과 동향 등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부터 직접 습득하고, 관계

전문가와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포럼은 한 개의 특별 분과(세션)와 세 개의 분과(세션)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과를 통해 위케이션 관련 산업 구조와 부산의 현재 상황을 데이터로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 위케이션 스타트업 창업 사례와 유망기업의 디지털전환의 효과적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

특별분과(세션)에서는 '부산 지역 주류/수산 가공식품 데이터 분석 사례'를 주제로 이춘수 제로투원파트너스 디렉

터가 발제에 나선다. 이춘수 디렉터는 공공·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당면한 비즈니스 이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컨설팅 전문가로, 주류 판매 동향 분석 및 시각화 사례, 수산 가공식품 소비 동향 분석 및 시각화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중장기 숙박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과 위케이션'을 주제로 정성준 미스터앤션 대표가 발제한다. 미스터앤션은 중/장기 숙박업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숙박 및 여행객 장기 체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케이션 연관성이 높은 중장기 숙박 플랫폼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 사례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박현주 오피스(O-PEACE) 제주 공동대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피스 제주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대해 강연한다. 오피스 제주는 제주 지역 내 위케이션 업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통해 위케이션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분석해 사업 확장에 활용 중인 회사다. 마이리얼트립, 프라이머 등 유력 벤처캐피탈(VC) 및 위케이션 관계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경험이 있어 더욱 뜻깊은 강연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최희태 더웨이브컴퍼니(파도살롱) 대표

가 '데이터로 보는 로컬 콘텐츠와 위케이션'에 대해 강연한다. 더웨이브컴퍼니는 강릉지역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위케이션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하고 있는 위케이션 스타트업이다.

시는 이번 포럼이 데이터 및 위케이션 산업 관계자, 관련 창업자, 관심 있는 시민 등에게 전문가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케이션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의 효과적 활용 방안과 나아가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유기적 협업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럼 참가 신청은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세계적으로 일과 휴가를 합친 위케이션이 하나의 근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부산이 위케이션 산업의 최적지다."라며, "이번 포럼이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이 데이터 기반 위케이션과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바라며, 우리시는 데이터 기반 경영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 등 지역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경상북도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



청송군은 11월 10일 경북도청 동력관에서 개최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군농정평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 농정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예산확보,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분야에 걸쳐 농정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청송군은 전체 예산 대비 농업·농촌 분야에 21.96%인 1,210억원을 확보하여 청송사과 미래형과원 조성 목표까지 지원 등 특수시책으로 농정발전에 기여

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북 최고의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과원 미세살수장치지원을 추진하고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특수시책을 펼쳐 '다르게! 새롭게! 피어나는 미래농촌'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이날 청송군은 시군농정평가 우

수상 수상과 더불어 경북농업인 대상에 채소특작분야에는 현서면 박정희 씨가, 여성농업인분야에는 현동면 김은주 한여농도연합회장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상북도 농정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농업 대전환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일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곰팡이, ZERO! 뽕송 세탁 지원 사업』

영양군 일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월 10일 영양읍에 위치한 아쿠아워시 셀프 빨래방에서 『곰팡이, ZERO! 뽕송 세탁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부피가 큰 빨래감을 홀로 세탁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일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들이 가정방문하여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및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로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세탁된 이불을 전달받은 이OO(남, 89세) 어르신은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몸이 불편해 혼자 겨울 이불 세탁을 못 해 막막했다."라며 "이제 깨끗해진 이불을 덮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어 행복하고

든든하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상화 공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일월면은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2023년 시·군 농정평가대상수상

의성군은 10일 경북도청 동라관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시군 농정평가' 대상 수상 영예를 올리는 등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농정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의 농정업무 활성화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 농식품 유통, 친환경농업, 농촌활력, 축산정책, 특수시책 6개 분야에 대해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정부시책 추진, 신규시책 발굴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의성군은 농산업을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 등 모든 평가 항목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특히 농촌협약,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등 대형공모사업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성과는 농업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의성군의 다양한 시책사업과 국비 확보를 통한 특수사업을 발굴하는 등 의성군의 농업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의성군의 도내 선진 농정위상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계기가 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3 농정평가 대상 수상을 통해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로 경북 농업의 중심으로서 의성군의 저력을 과시했다."라며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농산업을 다각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과 소통하는 현장농정을 실현해 대한민국의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의성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의성군 10년 연속 수상 쾌거! "대상" 수상 2023년 시군 농정평가

프랑스 에콜42 글로벌 SW교육프로그램, 경북도 경산에 문 열다

경북도, 전 세계 50번째 국내 2번째로 프랑스 에콜42 경산 개소

경북도는 13일 경산 대구대학교 자유열람관에서 전문적 실무역량을 갖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프랑스 에콜42 경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디지털 고급 인재 양성의 전당, 프랑스 에콜42 경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윤두현 국회의원, 250여 명의 42경산 1기 예비 교육생들이 참석했다.

에콜42 경산은 자기주도 학습,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창의 혁신적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와 경산시가 협력하여 2023년 5월 설립한 기관이다.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無과정으로 글로벌 SW교육 프로그램인 프랑스의 에콜42 과정을 도입해 2년 비학위 과정의 자기주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매년 200명의 SW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전 세계 50번째, 국내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지방에서는 최초로 공공이 주도하는 SW 고급개발자를 양성하게 된다.

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협력 프로젝트, 현장 개



발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콜42 경산은 민법상 성인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이면 전공, 경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42경산' 홈페이지에서 기역력과 논리력 테스트로 구성된 온라인 테스트에 언제 어디서나 응시가 가능하다.

온라인 테스트 합격 후 응시자 본인 확인과정인 체크인 미팅까지 완료한 응

시자는 11월 27일부터 열리는 1개월 집중교육과정(La Piscine)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정 통과 후 23개월의 본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교육생들은 단계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자기주도적 동료학습(Peer to Peer)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콜42 경산은 기업 프로젝트 과제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2일 발레오 코리아와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있다.

교육장은 경산시가 제공한 대구대학교 자유열람관을 활용한다. 3층으로 구성된 건물로 총 420여 대의 PC가 설치된 교육공간과 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구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기숙사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디지털 인재나 기업, R·D 투자예산 등 디지털 생태계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소외가 심화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에콜42 프로그램을 도입한 만큼 사활을 걸고 성공시켜 지역혁신사제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의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양질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는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해 향후 에콜42 경산의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니 에콜42 경산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경북도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

농업농촌 정책 추진 실효성 인정받아

영주시가 10일 경북도청 동라관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군 농정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년 실시되는 농정평가는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정책, 농식품 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6개 분야를 심사한다. 영주시는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 대내외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관이 합심해 이룬 결과이다.

특히, 농촌지역 개발, 농식품 유통 분야 체계 구축 및 원예특작산업 육성 등 농업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대내외적 여

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주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정평가에서 우수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농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2023년 시군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

경주시,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92억) 높이 평가

경주시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2023년 스마트 국토엑스포 행사에서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표창은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게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주시는 2025년까지 4년간 92억 원을 들여 땅속 상·하수도 관로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해 공간정보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는 최근 2년간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적극 투입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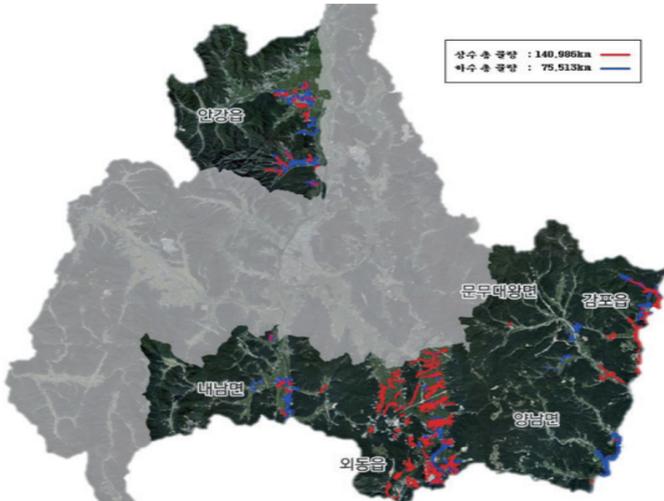
이기도 하다.

또 지난 4월에 정확한 지하시설물 정보 구축 등 스마트 지하정보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은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더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형 관광안내 서비스 개발과 신라 서라벌의 옛 모습을 디지털 3차원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축할 '2023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추진도 수상의 배경이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간정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도시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예천군, '제 54회 중부지역 궁도대회' 성황리 개최

소백산맥의 정기를 받으며 250여 명 참가해 기량 펼쳐

예천군은 지난 12일 예천군 무학정(국궁장)에서 제54회 중부지역 궁도대회를 개최했다.

예천군궁도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소백산맥을 끼고 있는 강원, 충청, 경북 지역만 참가하는 전통 있는 대회로, 각 지역에서 250여 명의 궁도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간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힘차게 시위를 당겼다.

경기는 노년부, 장년부, 여자부로 나눠 노년부는 만 65세 이상, 장년·여자부는 만 18세 이상이 선수로 출전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최고의 공사를 가리기

위한 선의의 경기를 펼쳤다.

이날 경기 결과 ▲단체전은 원주시 학봉정이 1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전은 ▲노년부는 안동 영락정 마호권 선수 ▲장년부는 원주 학봉정 고종문 선수 ▲여자부는 문경새재정 성경은 선수가 각각 1위를 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제54회를 맞이하는 중부지역 궁도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국궁은 심신을 수련하는 우리 고유의 스포츠로서 앞으로도 많은 궁도인들이 예천에서 멋진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안동시, 안동소주 중국시장 첫 수출 '세계화 신호탄'

명품안동소주 16.9도 초도 물량 15톤 시작으로 총 45톤 수출



안동소주가 세계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중국시장에 처음으로 수출됐다. 이번에 수출되는 명품안동소주는 16.9%(360ml)의 참조은 안동소주로 초도 물량 15톤을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45톤을 수출업체 우일음료(주)를 통해 중국 청도 지역에 수출된다.

수출 선적식은 13일 명품안동소주 본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순중 안동시의원 등 수출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시장 수출 축하와 함께 관계자를 격려하고, 안동소주 세계화를 촉진하는 결의를 다졌다.

명품안동소주 윤종림 대표는 "세계

적 명주인 마오타이가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 차별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안동소주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널리 알려지고, 명품안동소주의 뛰어난 맛이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했다.

한편, 안동시는 안동소주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경북도와 함께 미국 LA 홍보 판촉 행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확대 MOU 협약 등을 통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동소주는 2023년 10월 기준 미국, 멕시

코, 호주, 베트남 등에 47만 3천달러 어치를 수출(전년 연말 53만 3천 달러)했다.

권기창 시장은 "700여 년 전통의 오랜 역사와 뛰어난 제조 기술을 지닌 안동소주는 중국의 마오타이, 유럽의 위스키, 일본의 사케 등에 견줄만한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라며, "안동소주의 생산시설 규모화·현대화, 브랜드 이미지 및 공동주병 개발, 국내외 홍보 강화, 해외시장 개척,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으로 세계적인 명주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제41회 봉화군협회장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 성료

제41회 봉화군협회장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가 지난 11일 봉화군 복합스포츠타단지 실내테니스장 등지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봉화군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봉화군, 봉화군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동호인들의 실력에 따라 송이부, 은어부로 나눠 관내 직장·단체 25개 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펼쳤다.

대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김상희 봉화군의회의장, 박창욱 도의원, 박중화 봉화군체육회

장, 서한철 봉화군배드민턴협회장 등이 참석해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치열한 승부 끝에 마무리된 이번 대회는 송이부에서 △우승 송이A클럽 △준우승 백작클럽 △3위 우체국클럽 △4위 송이B클럽이 각각 수상했다.

은어부에서는 △우승 백작클럽 △준우승 영석B클럽 △3위 봉화클럽 △4위 봉성클럽이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서한철 봉화군 테니스협회장은 "테니스 동호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대회



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테니스 열풍이 불고 있다는 말

을 이번 대회를 통해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요계취 싱, 인도 델리대학교 부총장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에게 감사서한문 보내

싱 부총장, 경북도에서 특별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 감사



지난 10월 4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인도의 미래 발전상'을 주제로 도청 공무원 및 유관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인도 델리대학교의 요계취 싱(Yogesh Singh) 부총장이 이철우 도지사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내왔다.

델리대학교와 경상북도의 인연은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5월 델리대를 방문해 '한국의 꿈,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환경'이라는 주제의 특강과 유학생 유치설명회를 개최해 델리대 학생들의 경북진출에 큰 관심을 끌어낸 일을 계기로 싱 부총장이 지난 10월, 경북도를 방문했다. 이후 델리로 돌아간 싱 부총장이 감사 서한문을 보내온 것이다.

싱 부총장은 지난 10월 경북도청을 방문해 "인도의 미래 발전상(How India will develop in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도청 공무원 및 유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싱 부총장은 서한문에서 "경북도의 공무원과 저명한 인사들 앞에서 인도를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인도의

미래상을 강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이철우 도지사와 경상북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서인 수문잡방에 따른 한식 요리를 맛보고 한옥 호텔에 숙박하면서 경북의 매력에 흠뻑 빠진 싱 부총장은 "한국의 채식 요리 및 음식문화를 배우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라며, "짧은 방문이었지만 한국 속의 한국인 경상북도의 문화와 이철우 도지사님의 인격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싱 부총장은 "이철우 도지사가 인도 델리대학교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향후 델리대의 우수한 인재가 경북에 진출해 델리대와 경북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초대에 감사드린다"라며, "세계의 정보기술(IT)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는 델리대의 우수 인재들을 경북으로 유입하여 지역대학과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청송군은 11월 13일 청송읍 청운농장을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총 36개소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실시한다.

매입물량은 1,812톤(45,307포대/40kg)으로 포대와 톤백으로 구분하여 매입한다.

올해 매입품종은 삼광과 안평이며, 매입대상 품종(삼광, 안평)이 아닌 다른 품종을 출하하거나 기타 품종 혼합비율이 20%이상 혼합했을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농가에서 2024년부터 5년간 제외되므로 출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농작물 서리 및 우박피해와 함께 영농자재비 상승에 따라 어느 때보다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말 공공비축미곡 가격이 높게 형성돼 그동안 농업인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매입단가는 중간정산금(일반벼 3만원/40kg)을 매입 직후 지급하고, 최종정산금은 매입가격이 결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영양군 드림스타트 '영양제 및 과일꾸러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영양군 드림스타트는 만12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있는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실시한 드림스타트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비타민 D 부족 소견이 나온 아동 36명에게는

비타민D 영양제를 지원하고 그 외 아들에게는 종합 영양제를 지원했다.

이에 드림스타트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영양제를 전달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강을 살피고 영양제 복용법을 안내했으며 다양하고 신선한 제철 과일로 구성된 과일꾸러미는 당일 배송 택배로 전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지원을 통해 평소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신체 영양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군 드림스타트는 만12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건강·복지·보육 영역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는 영양군 드림스타트를 바탕으로 비타민 D 부족 소견이 나온 아동 36명에게는

윤근수/기자

부산시, 엘이디(LED) 조명 교체공사에 따른 곰내터널 교통통제

곰내터널 내 엘이디(LED) 조명 교체공사에 따른 교통통제 실시

부산시는 엘이디(LED) 조명 교체공사에 따른 곰내터널(기장군 정관산업로) 교통통제를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12월 3일 제외)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통제는 터널에 설치된 노후 조명을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공은 (주)태양기술개발이 맡는다.

교통통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행선(석대→정관)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상행선(정관→석대)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통제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곰내터널 상·하행선 각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하며, 통제하지 않는 1개 차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승기 부산시 도로계획과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터널 내 밝기를 개선함으로써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통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히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교통통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타 지역 청년 대구 한 달 살기'성황리에 마무리

로컬크리에이터,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진행

대구광역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9월부터 11월까지 타 지역 청년들이 대구 도시재생구역에서 취·창업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인재유입 정착지원 사업'을 운영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싶은 타 지역 청년 33명이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기수로 나누어 한 달 살기를 체험했다.

북구 도시재생구역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대굴대굴 대굴온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중구 도시재생구역에서는 '문화기획프로젝트: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대굴대굴 대굴온나' 프로그램에는 9월에 8명, 10월부터 11월에 8명, 총 16명의 타 지역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한 달 동안 산격1동에 위치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연암서당골 등 지역 명소를 탐방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했다. 특히 고흥중 주민주민과 산격1동 일대에 젊은이들의 입주로 싱그러움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었다.

또 죽곡·목공과 같은 다양한 도시재생 테마별 활동과 카페·목공 등 지역의 취·창업 자원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로 거듭나기 위해 열정을 쏟았다.

'문화기획프로젝트:틈' 프로그램은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했으며, 타 지역 청년 17명이 참여했다. 중구 동산동 약전골목, 성내1동 통신골목 등 스토리가 있는 골목 구석구석을 탐방하고, 생각과자 김민서 대표를 포함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



야 선배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대구라는 도시와 대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가졌다. 또 팀을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해 볼으로써 문화기획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중구 진골목과 동인세대공감, 동성로 28 아트스퀘어에서 '참여청년들이 바라본 대구'를 주제로 전시, 체험부스와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굴대굴 대굴온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승희(23세) 씨는 "안동에서 태어나고 구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에서 창업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에서 창업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댈 수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온 김현경(27세) 씨는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시간의 흔적이 연암서당골만의 매력이다. 이 고유성을 활용해 연암서당골을 대구의 성수동으로 만들고 싶어 정착을 결심했다"며, "구암서원의 야경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된 이번 사업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하고,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와 아울러협동조합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과

장은 "타 지역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문경시로 오세요

인구정책 홍보 캠페인

문경시는 11월 10일 문경새재에서 열린 제7회 생태관광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경시 인구증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증가시책 홍보물과 문경 사과음료를 무료 제공하였으며, 전입이사비용·장학금 지원사업·출산장려금·청년지원정책 등 문경시의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으로는 ▲전입 이사비용(1인당 30만원) ▲전입 추천지원금(1인당 10만원) ▲2인 이상 전입 시 주택 수리비(최대 200만원 한도) ▲입학준비금 지원(1인당 30만원) ▲문경시장학회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

원 ▲출산장려금 지급(출생아 당 500만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간 1백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이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혜의 자연경관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체류 시설 조성으로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를 활성화하여 지역에 활력 더하는 것은 물론, 생활인구가 머물러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애들아, 우리 신나게 놀아볼까?... 영등포구, 첫 서울형 키즈카페 개관

평일 화~토, 오전 9시~오후 6시...서울시 거주 25개월 이상 유아 대상

영등포구가 11월 14일, 대림2동에 영등포구의 첫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대림2동점)'를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마음 편히 야외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민간 키즈카페를 이용하려 해도 비싼 가격에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에 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영등포 자이르네 아파트 상가 2층에 430m² 규모의 밝고 쾌적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했다.

운영 시간은 평일 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5개월 이상 미취학 유아이다. 아동 1인당 2시간씩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3,000원이다. 두 자녀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혜택도 주어진다.

키즈카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을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하면 된다.

내부 공간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트램펄린, 징검다리, 미끄럼틀, 밴딩 탈출 등 다양한 놀이 기구가 가득한 '우당탕탕 놀자GO' ▲마트, 카페 등 역할 놀이를 해보는 '조물조물 놀자GO'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그림 놀이 공간인 '알록달록 놀자GO' ▲신나게 자동차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요리조리 놀자GO'로 꾸며졌다.

특히 구는 미래 지식산업의 흐름에 맞춰 코딩 로봇 프로그램도 마련해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모가 급한 일이 있거나 개인



적 업무를 봐야 할 때 보육 교사 자격을 갖춘 돌봄 교사가 놀이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잠시나마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키즈카페는 놀이 기구 안전 점검과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내부 공간은 모두 친환경 소재와 방염 소재를 사용해 보다 안전한 실

내 놀이 공간으로 조성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에 조성된 첫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초구,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어워드'서 우수기관 선정

유니버설디자인 5대 가치 충족, 저출산·고령화 등 대비 세대융합 공간 제공 등

서초 3동 예술어린이공원(서초동 1455-4)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인정받았다.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주최한 '2023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어워드' 환경조성 공공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번 대회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 인식 확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2021년부터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조성, 서비스, 제품 등 3개 공모 분야로 나눠 민간·공공분야 우수사례 총 12점을 선정했다.

이에 서초3동 예술어린이공원은 '세대융합 공공공간'이란 주제로 유니버설디자인 5대 공유가치인 ▲제작 없는 공유 ▲안정적인 균형 ▲존중받는 다양성 ▲혁신적인 변화 ▲안전한 공간 등을 두루 적용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예술어린이공원'은 기존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해 아이와 어르신이 적절한 거리를 지키며 상생하는 공간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 공원 내 단차 제거 등 접근성을 높인 점, 아이와 보호자, 어르신이 함께 이용하며 돕는 자연감시(CPTED) 기능을 더해 범죄예방에 좋은 모델이라는 호평도 받았다.

'예술어린이공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융합을 위한 서초구의 '세대융합 공공공간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지난해 리모델링해 올 1월에 1,300m² 규모로 재탄생했다. 초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치매 예방효과를, 아이에게 공동체 인식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작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시니어 운동기구, 계절 변화를 느끼는 텃밭, 공원 외곽을 돌



수 있는 순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산책로는 치매방지 사인물 등을 설치해 인지건강 증진에 도움 되도록 했다. 또 어린이들에게는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했다.

공원 내 시설물들은 노란색상을 사용해 밝고 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 원형 조형 놀이대는 전 세대가 이용가능한 시설물을 조합했다.

구는 세대융합 공공공간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양재2동 동산어린이공원이 다음 달에 완료 예정이며, 내년에는 방배2동 남태령 어린이공원도 정비해, 전 연령층이 모두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구는 이번 수상으로 상장(서울시의회 의장상)과 인증 현판을 받았으며, 현판은 예술어린이공원에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9년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상 ▲2018년, 2020년 공공 디자인 대상 ▲2016년, 2020년, 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 등 전국 지자체 중 공공디자인을 선도하는 도시로 인정받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공간을 확대해 세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새로운 변이에는 새로운 백신으로! 송파구, 코로나19 무료예방접종 실시

11월 1일부터 전 구민 대상 XBB계열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 무료접종 시작

송파구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전 구민에게 새로운 유행 변이에 맞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통)에 대응하여 개발된 새로운 백신(XBB.1.5 단가백신)이다. 신규백신은 항체를 10배 이상 생성하고, 접종 이상반응 발생빈도도 이전 백신보다 15%이상 낮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접종도 매우 간편해졌다. 5세 이상 대상자는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요즘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날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현재 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주 약 9천여 명의 양성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동절기에 대비, 지난 10월 19일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는 전 구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백신부터는 고위험군 영유아·소아뿐만 아니라 일반 영유아·소아도 희망하면 접종할 수 있다. 다만, 6개월~4세 영유아는 접종 이력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화이자 백신은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

으므로 만약 화이자 접종력이 있다면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는 12월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온라인 사전예약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예약 없이 당일 접종하면 된다. 단,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감염이력이 있어도 재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주변 기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홍수/기자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꼭드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와 남이로,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발효보조공원, 반딧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화공원, 영양공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아산시 “농업을 새롭게, 농민을 신나게”

11일 신정호 잔디광장서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아산시는 11일 신정호 잔디광장에서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아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을 새롭게, 농민을 신나게’를 주제로 12일까지, 농촌 발전을 염원하고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도농 상생 한마당 축제로 진행된다.

이날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 강훈식 국회의원, 시도의원을 비롯해 송광현 아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과 농업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인 외줄타기, 풍물놀이 등을 시작으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또 춤마덴스, 난타, 국악(경기민요), 실버밴드, 밸리댄스, 현악기 앙상블, 어울림 통기타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과 노래자랑도 펼쳐져 농업인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쌀 나눔 행사, 김장담그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떡메치기 체험

등 즐길거리와 먹거리 부스도 운영됐다. 송광현 아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을 한해는 각종 농업재해와 기상악화로 인해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번 행사가 1년간 수고한 농업인들에게 신명 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박경귀 시장은 “우리 농업은 갈수록 그 비중이 줄고 있지만, 농업이야말로 생명산업의 근본이자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농업 부분은 정말 많이 고민했다. 농업인들의 복지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의 가장 큰 근본)’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인의 날은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뤄진 점에 착안해 11월 11일로 정해졌으며, 1996년 법정 기념일로 승격됐다.

김원호/기자



태백시,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훈련 실시

태백시는 오는 14일 전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별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협조 체계 등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상황점검 영상회의, 관급공사 제한(노후 건설장비 사용 제한 등),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점검 및 도로청소 등 실제 훈련과 서면 훈련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승 산업과장은 “겨울철은 난방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개선되는 매뉴얼에 반영하고, 실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강원특별자치도, 2023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평가'노인정책(장기요양) 부문' “대상” 선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치우개선 부문, 전국 지자체(도·시군) 평가 1위

강원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평가 2023년 노인정책(장기요양) 분야 시도 부문에서 대상(15백만 원)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6개(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 및 지자체 노인복지 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한 노인정책(장기요양분야) 평가로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시·도 부문은 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시·군·구 부문은 춘천시 “우수”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정책환경에 맞는 노인분야 중장기 계획에 장기요양인력 치우개선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장기요양요원 권리보호 거점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노인·인권상담, 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장기요양인력 치우개선(복지수당 등) 지원, 주요정책 발굴, 시군 및 관련기관 간담회, 각종 캠페인 언론보도 등 홍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도내 노인복지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을 통해 시설 어르신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격려해 왔으며, 앞으로 장기요양종사자의 실질적인 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장기요양인력과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선도적 돌봄 문화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메가시티 충청에서는 가능합니다.

충청시대 개막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 선포식 개최



충청권 4개 시도는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공동 노력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

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태환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

과 활성화를 위해 ▲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 ▲ 지방의로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태홍 충남지사는 “충청권이 하나 되면 인구 560만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수도권에 대항,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말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지사는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라 할지라도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개헌을 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첩첩으로 쌓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이 날을 계기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4개 시도의 협력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 같다”며, “앞으로 목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북에 국내최초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들어선다

도내 모든 수소충전소 자체 공급으로 본격적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 개막

원강수 원주시장, 중국 허페이시 자매도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원강수 원주시장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허페이시에서 개최되는 자매도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원주시는 2002년 6월 중국 안후이성 성도인 허페이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5년마다 원주시와 허페이시에서 번갈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행정, 교육,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은 지난해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따라 올해 허페이시에서 2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우정의 나무 식수, 기념식 행사, 교류 사진전, 원주예총과 허페이시 문학예술연합회의 합동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와 허페이시는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2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20주년 기념행사를 바탕으로 우호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

김정환/기자



충북도는 청주시, (재)충북테크노파크, 제이엔케이이더(주), (주)에어레인, 창신화학(주), 충청에너지서비스(주)와 함께 13일 충북도청에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열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신병대 청주 부시장,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김병희 제이엔케이이더 대표이사, 하성용 에어레인 대표이사, 배한동 창신화학 대표이사, 구현서 충청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시설 구축’을 통해 충청북도 청주시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충북도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국가 수소진흥전략기반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공동모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정부 에너지정책(‘22.7.5.관계부처합동) 및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22.11.9.관계부처합동)에 따라 수소의 생산 방식을 기존 그레이수소에서 청정수소 기반의 생태계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목표로 도시가스

를 원료로 하여 일 3톤의 수소를 생산·공급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하여 드라이아이스로 재가공 후 대형 신선식품 배송사에 공급하는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시설이다.

본 생산기지 주변에는 생산된 수소를 배관을 통해 직접 수소를 공급하는 제조식 수소충전소가 구축되고, 충북 및 인근지역의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출하센터도 구축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10억원 포함 약 391억원이다.

또한, 청주시는 24년까지 79대의 수소 버스를 신규 도입하여 관내 주요 기업의 통근버스 및 시내버스로 활용하고, 25년까지는 수소 생산기지 인근에 청주시 버스 차고지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수소버스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에너지는 충전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만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행중에는 계속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수소버스 1대가 1km 달리면 약 4.8kg의 공기정화 효과가 있어 달리는 공기정화기라고도 불린다.

내년까지 청주시에 수소 버스 79대가 운행되면 청주시민 약 6,000명이 1년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양을 정화한다.

현재, 도내 수소충전소는 연구용을 포함하여 총 19개소가 운영 중으로 전



국에서 수소충전소 보급률이 가장 높아 수소차 운행 편의성이 최고 수준이지만 수소 생산시설이 없어 울산, 충남, 인천 등 100km 이상 떨어진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로부터 생산된 부생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고 있으나 장거리 운송에 따른 수송비용으로 그동안 충북도내 수소 충전 소비자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동안 몇 차례 화물차 파업 등 물류대란 시 수소를 운반하던 차량도 파업 여파로 인해 수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소차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하루 3톤의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 데 이는 현재 도내 수소충전소에서 소비되는 소비량 모두 소화할 수 있어 도내 수소 공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소 판매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도내에서 수소를 자체 생산, 공급함으로써 수소 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는 수소의 많은 장점과 특히 안전성을 더욱 홍보하여 충청북도의 수소 사회를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대전시, '메가시티, 충청에서는 가능합니다'

충청시대 개막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 선포식 개최

충청권 4개 시도는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 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 ▲지방의료 재

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오늘을 계기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4개 시도의 협력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 같다"라며 "앞으로 목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계획 반영...BTO 방식 건축 2025년 6월 준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을 반영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13일 승인해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대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대학교)로 결정된 시설로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전 도시관리계획 세부조성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

현재 인천대학교 재학생 기존 기숙사 비율은 약 24.3%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행복기숙사 신축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5년 6월 준공되면 기숙사 비율이 약 31.4%로 늘어나게 된다.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사업비가 363억으로 추정되는 재원을 조달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 후 인천대학교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30년 동안 기숙사를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행복기숙사의 규모는 총 15층(지하1



층 ~ 지상14층) 2개 동으로 총 90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인실 270실, △2인실 312실, △장애인실 6실로 건축된다. 내부에는 취사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편의점 등 공용으로 이용가능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에 인천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되면서 학생들의 거주 부담이 완화되고 생활환경 개선과 면학분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의정부시, 미래가치 공유의 날 통해 건전재정 운용 다짐



의정부시는 11월 13일 '미래가치 공유의 날'을 열고 재정 위기를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 건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월례행사로 진행되는 미래가치 공유의 날은 시장과 직원이 시의 발전적 비전과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중점적으로 추구해 나갈 미래가치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공유의 날은 시청 대강당에 직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을 주제로 진행했다. 현재 의정부시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먼저, 기획예산과 박혜경 예산팀장이 최근 여러 해 동안의 시 재정여건 변화와 세입·세출 규모, 재정 위기의 내·외

부 환경적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현황을 직원들과 신속히 공유하고, 부서별 예산수립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동근 시장은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국가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액을 꼽았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에 재정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최근 10년간 세입 예산 규모가 157% 늘어나는 동안 자체수입은 68% 증가에 그치는 등 자주재원이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및 개발제한 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 자족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동근 시장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업무 통·폐합,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기 조정,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 예산 절감과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동근 시장은 "위기 뒤에는 언제나 기회가 함께 찾아온다. 이번 재정 위기를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 건전재정 운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직원들도 힘을 모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발전 유공자와 모범 보육교직원 등 34명이 김동근 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최만식/기자

정영철 영동군수, '영동군 1호 세일즈맨' 자칭

정영철 영동군수가 '영동군 1호 세일즈맨'을 자칭하는 색다른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 군수는 취임 후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 충북도를 수시로 찾아 예산확보활동을 펼쳐왔으나, 민선8기 2년차부터는 공모사업 평가회 등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평가위원들 앞에 나서고 있다.

초선 단체장이지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간절함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영동군이 도내 유일하게 A등급에 선정돼 기금 112억원을 확보했다.

정 군수는 지난 9월 지방재정공제회 관에서 열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면평가에 참가하여 직접 평가위원에게 질의응답을 받으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풍류 영동 기반구축 사업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제24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에서도 빛났다.

'포도가 빛낸 신의 선물 와인, K-와인의 선두주자 영동군'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군수는 와인산업 현황과 육성 과정, 수상내역 등을 직접 소개하며 영동 와인의 우수성을 홍보 했고, 야마

나시현 니라사키 시장과의 면담에서 영동의 와인러리 벤치마킹 등 우호협력을 이끌어 냈다.

특히 지난 6일 민선8기 최대 역점공약인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200억원 규모의 '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현장평가에서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평가위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임지요건 등을 설명하고, 막힘 없는 질의응답으로 평가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한편 '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평가 결과는 이달말 발표 예정이다.

정 군수는 "민선 8기 2년차 접어들어서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직접 발표자로 나서 공모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경북교육청, 학교 특성에 맞는 재난 안전 교육 모형개발에 박차

구미신당초등학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과 학생 주도 재난대피 훈련

경북교육청은 구미신당초등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설치학교의 재난 안전 교육 모형개발과 재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과 학생 주도 재난대피 훈련을 13일 실시했다.

이번 재난 안전 교육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 내 침착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모듈러 교실 설치학교의 재난 안전 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 안전 교육은 (사)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협업하여 체험 중심의 재난교육과 학생 주도 재난대피 훈련 사전 준비 컨설팅을 비롯하여 4회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1회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교육의 필요성과 재난 유형을 게임을 활용한 학생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회차는 안전 맵핑, 역할 분담, 대피지도 만들기 등 학교 시설 곳곳을 직접 점검하면서 상황별 역할에 맞는 대피 훈련 연습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실시한 3회차 재난대피 훈련은 (사)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화재·지진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실제 재난대피 훈련으로 진행했다.

4회차는 학교 자체 평가회를 통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재난 안전 교육 모형을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모듈러 교실 설치학교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난 안전 교육 모형개발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구미인덕초등학교, 구미문성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이 주도하고 피부로 느끼는 체험 중심의 재난 안전 교육을 시행했다.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학교 학생 안전 교육담당자와 안전 관련 전문가와 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별 맞춤형 재난 안전 교육과 특화된 대피 훈련 모형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재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난 안전 교육 모형을 개발하여 학생·교직원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부산교육청,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해단식 가져

우수선수(팀), 지도자 대상 격려금 및 특별훈련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오후 4시 연제구 아시아드시티 세미나홀에서 입상 학생, 학교장, 지도교사, 지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은 값진 성과를 거둔 학생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다.

하윤수 교육감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결과 보고를 받고, 우수 학생 선수(팀)와 지도자, 우수학교에 격려금과 특별훈련비를 수여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번 전국체육회는 우

리 선수들의 기량이 날이 향상되는 것을 실감한 대목이었다"며 "오늘 해단식이 끝이 아닌, 꿈을 향해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고,

"의류마케팅 동아리 가먼트 성공적 부스 운영"

다양한 활동으로 의류마케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고등학교는 2023년 11월 10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의류·마케팅 정규 동아리 가먼트 부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가먼트 동아리 학생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의류·마케팅을 쉽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스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준비했으며 그 결과 성공적으로 부스 운영을 마무리했다.

가먼트가 준비한 부스 활동은 4가지로 퍼스널 바디 타입 활동, 건축 교실 활동, 브랜드 퀴즈 활동, 코디 퀴즈 활동으로 구성됐다. 퍼스널 바디 타입 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형 유형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체형을 안내하여 잘 어울리는 의상을 소개했다. 건축 교실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랜드마크 건물들의 디자인을 엿보고 건축 구조를 알아보도록 했다. 또한 브랜드 퀴즈 활동과 코디 퀴즈 활동을 통해 학생들

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와 트렌드를 반영한 코디를 소개하고 알아맞히는 활동을 제시했다.

가먼트 부스 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한 가먼트 동아리장 명찬양 학생(2학년)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류와 마케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기대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부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울진고등학교 가먼트 담당 교사 정보경은 "가먼트 동아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구성하고 또한 의류와 브랜드 지식을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단순히 정보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실생활 속에 접목하여 체형과 취향에 적합한 의상과 디자인을 찾아보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도(都)-농(農) 이음교실'로 교육장벽을 허물다

작은 학교 환경을 큰 학교가 공유하는 프로그램 운영



경북교육청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우수한 공간과 환경을 활용하여 도시 큰 학교와 공동 수업을 운영하는 '경북도(都)-농(農) 이음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경북 도(都)-

농(農) 이음교실'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학습 공간을 도시 큰 학교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교육활동으로 교육 환경의 효율적 활용과 상호 보완으로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 학교인 길안초등학교(김승보교장 포함)와 도시 학교인 안동강남초등학교 4~5학년 한 학급을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했다.

이를 위해 길안초등학교와 안동강남초등학교는 교육과정 협의회를 조직하여 도(都)-농(農) 이음교실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도 했다.

공동 개발한 도(都)-농(農) 이음교실 프로그램인 △길안의 지리적 특징과 연계한 사과 관련 글 쓰기와 사과 따기 프로그램 (7차시) △김장하는 방법과 직접 담근 김치를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나누기 프로그램(8차시)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릉 정화기 만들기 및 길안천 생태 체험 프로그램(7차시)이 공동 수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안동강남초등학교에서 길안초등학교로 이동수업 시 길안초등학교의 통학 차량과 급식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길안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7명인 작은 학교로 VR 체험실, 실내골프장, 놀이시설 등 학교 내 우수한 교육 환경 공간과 길안천지생태공원과 길

안천 등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생태 전환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농촌 학교이다.

경북교육청은 이 사업이 도시 큰 학교에서는 어려운 생태학습 등을 식막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 작은 학교의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우수사례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우수한 환경을 도시 큰 학교가 함께 활용하는 혁신적인 시도로 학교 간 교육 환경 이용의 장벽을 허물어 학생의 미래 역량이 키우는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경상북도 GYEONGBUK-DO

서울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채우기·틀기·녹이기'로 예방

15일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대책기간 추진, 동파 취약 31만 세대 보온 강화

서울시는 올겨울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채우기·틀기·녹이기' 3대 안전 수칙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가정에서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한파가 이를 이상 지속될 때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고, 언 계량기는 천천히 녹여주는 등 간단한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를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7천 7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동파 원인의 97%가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보온이 미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 나흘간의 설 연휴와 일 최저기온이 영하 17.3도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한파가 겹치면서 지난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전체 동파의 36.4%인 2,811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겨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31만 세대를 선정하고 맞춤형 보온대책을 마련했다. 보온대책은 찬바람을 차단해주는 계량기함 보온덮개 29만 장을 배부하고, 벽체형·맨홀형 계량기함 보온재와 동파에 강한 '동파안전계량기' 등을 지

역 특성에 맞게 설치할 계획이다. 계량기함 보온덮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29만 장을 배부하며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 연립·다세대 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10,600여 개,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맨홀형 보온재 1,800여 개를 설치한다.

'동파안전계량기'는 영하 10도에서 24시간 이상 견딜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동파 이력이 있는 수전을 중심으로 1만 개 설치한다.

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신속한 동파 신고 접수와 계량기 교체에 의해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상황 단계에 맞춰 시민 행동 요령을 안내해 동파 예방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시는 올해부터 '동파예보제'를 확대 시행한다. 연휴 기간과 한파가 겹쳐 장기간 집이 비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 기존 2~3일 전에서 이번부터는 7일 전부터 동파 예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동파예보제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단계별 동파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동파계량기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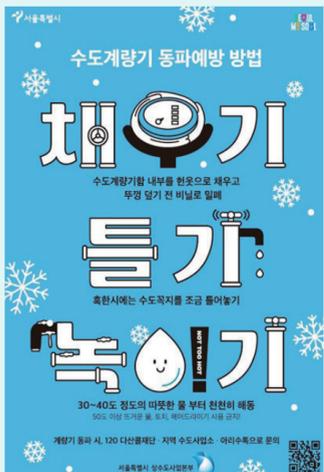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120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서 '온라인 민원 신청'의 '수도계량기 교체 신청'에서 신고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추가하고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아리수톡 상담 시작' 후 대화창에 '동파 신고'를 입력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올겨울 동파 대책 준비를 철저히 해 수도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각 가정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우리 집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11월 14일 오전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비상저감조치

경남도는 11월 14일,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 주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가 150µg/m³ 2시간 이상으로 지속되고 다음날 75µg/m³ 초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진행 절차는 11월 13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어, 14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서면과 실제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경남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안내 위주로, △관용차량 운행제한,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서면 훈련으로 대체하고 공공사업장인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관공공사장 양산시 사송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훈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도내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에는 친환경 청소차량 위주로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은 모의훈련인 만큼 이번에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과장은 실제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이행 상황과 점검할 계획이며,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까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경주시, 자동심장충격기 287곳 관리 실태 점검

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예정



경주시보건소가 다음달 8일까지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됐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짧은 순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다시 정상 박동을 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로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응급상황발생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등 287곳이다.

점검반은 현장과 서면 점검을 병행하

며 △장비 작동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응급처치교육 이수 여부 △매월 점검 일지 등 중점 점검한다.

보건소는 점검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 발생할 때 골든타임 내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부산시, 숙박업소·목욕장업소 위생관리 특별점검 실시

숙박·목욕장업소 관리자에게 빈대 정보집 배포·지도도 병행하는 등 자율 관리도 유도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부산 시내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수도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에서 빈대가 발견되는 사례로 인한 시민의 불안 해소를 하고 시민이 휴식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중위생영업소 가운데 국내에서 빈대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시설인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시내 숙박업소는 총 2천166곳이 있으며, 목욕장업소는 708곳이 있다.

점검은 시설별 자율관리를 위해 숙박업협회와 목욕장협회의 자율 점검단과 16개 구·군의 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1차,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점검은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며,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와 찜질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소 등을 우선 점검한다. 1차 점검을 통해 전체 시설의 70%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점검은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며, 1차 점검 시 발견된 미흡 시설 추가 점검과 함께 모든 시설에 대한

꼼꼼한 위생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의 소독 등 청결 유지 여부다.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 접객대, 로비 시설, 욕실, 샤워시설에 대한 월 1회 이상 소독 여부와 객실 내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의 청결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 옷장, 욕실, 휴게실 등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여부와 수건,가운과 대어복 제공 시 이를 자체 세탁하는 경우 세탁장과 비품의 보관 상태가 청결한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위생점검과 함께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의 관리자에게 '빈대 정보집'을 배포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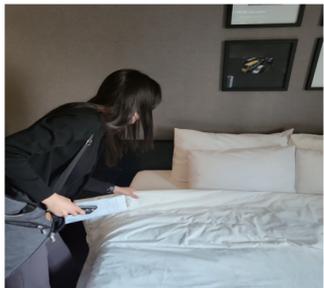
11월 9일자로 개정된 '빈대 정보집'에는 빈대의 특성, 빈대의 주야간 확인 방법, 화학적, 물리적 방제, 빈대 예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빈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빈대 의심신고, 방제 관련 문의처, 빈대 물림과 다른 곤충의 물림 흔적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 빈대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영업자 자율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시는 숙박업, 목욕장업 위생단체

간담회를 11월 13일 개최해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빈대 등 위생 해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머무는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에서의 빈대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관련 시설의 위생점검을 추진하고, 위생업소에서도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라며, "우리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